

## SERMON 19 MARCH 2017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nn Hogan's 어머니, Nancy 가 쓰신 작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묵상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중, Nancy 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대와 감사함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쉬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매일의 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것이 펼쳐질지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마 매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일상 적인 것이 있을 것 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것 들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신으시나요? 여러분은 같은 순서대로 옷을 입고, 같은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습관의 노예 입니다. 아침에 삶을 분주함으로 압박 받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딱딱 그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날 아침에 침대 반대편에서 나왔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아내 옆에 있는 빈 공간을 보니 아내는 침대를 가로 질러 미끄러지며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홍차 또는 커피? 뮤즐리 또는 토스트? 밥과 다른 것과 함께?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고 종종 감사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간신히 하루를 버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다른 종류의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더 많이 기대했던 날들이나 하지만 우연한 만남이나 대화, 우리가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은, 우리가 상점에서 만난 어떤 사람 -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때로는 심각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평범함이 어떻게 특별함이 되었는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 신앙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요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장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잊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들은 신이 그들을 어떻게 부양했는지를 잊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식인 만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 입니다. 이제 그들의 욕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닳아 없어졌고, 그들은 갈증, 피로, 배고픔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극적인 묘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도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건들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해 하신다고 믿나요? 그들의 예상된 투쟁의 날은 생기를 되찾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극적으로 물이 주어진 장소가 기억되는 때는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세의 시험과 그들의 불평에 대해 기억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요한 복음서에서 우리는 한 여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2000년 전 한 날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녀가 매일 그러했듯이, 그녀의 이웃들이었던 여자들의 하찮아하고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했을 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들은 그녀가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겪고, 또 다시 겪고는 태도를 바꿨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녀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험담했을 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가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따돌림 받았고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인간 관계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았지만 그녀의 고립감을 증폭시켰고 그녀의 평판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때 그녀의 친구였던 다른 여인들을 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원한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우물에

가지 못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었던 그들이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의 열기 속에서 혼자 가야 했을 것 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일상적인 것과 같은 날이 혹시나 있었나요? 확실히 그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결코 몰랐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일인 음식을 구하는 것, 물을 찾는 것이나 와인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삶이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놀라움 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은 더 적대적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적대적인 영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오랜 적대감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성스러운 장소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들은 피곤하고 배 고파하고 목 마른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지치고 종종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쉬는 동안 예수를 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피곤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이 필요하고 근심 걱정으로 초췌해 지며 외로운 여인의 삶은 몹시 어려워 지고, 힘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대화는 - 성경에서 가장 긴 대사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인생의 물이 주어진다는 것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통찰력이 풍부하고 또한 직접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위한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찾지도 않았고,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알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또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은 엄청난 놀라움들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아마도 항상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어두운 장소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균형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기대에 살았는지 또는 얼마나 수준이 낮고 우둔한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활기차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가 피하고 다녔던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우물에 갔다가 그녀의 모든 것에 관하여 아시는 어찌면

메시야가 되시는 그 낯선 사람을 만났다는 기이한 주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충격을 왜 받지 않을 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의 놀라움으로,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예절 위반과 오래 된 문화와 종교 전통의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전통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신성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최 우선시 되는 사랑과 용서가 언제나 되돌려 온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충격적이었고 그것은 항상 그들을 놀라게 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러합니다.

여기 Iona 에서 보다 현대적으로 적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Columba's Bay 에서 만났습니다;

Iona 의 셀 수 없는 순례자들 중 두 명

그는 자이르 출신의 목사입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출신의 중개인입니다.

그리고 가을 바람과 비에 의해 강타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대조되는 현실들에 뿌리를 두고

두 분 다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상처 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문의 숨겨진 이야기들, 암과 외로움의

우리 세계의 상관된 것을 반영한 탄탄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내는

신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잠시 동안 느껴졌습니다.

그 먼 저쪽 해안에

그들은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

그것은 진실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